



## 7 휴트니 미술관

# 미술의 즐거움 시민들에게 평평 쏟아내

뉴욕의 전통적인 갤러리 지역인 빠디슨 애비뉴 75번가에 가면 피라미드를 엎어놓은 듯한 건물이 눈에 들어온다. 바로 휴트니 미술관(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이다. 지난 1966년 독일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 마르셀 브로이어가 설계한 휴트니 미술관은 기능적이고 단순함이 돋보이는 바우하우스 스타일로, 계단을 거꾸로 세워 놓은 듯 층이 올라갈수록 넓어지는 외관이 특징이다.

휴트니 미술관은 1930년 미국 전역에 철도를 건설한 철도왕 밴더빌트 가(家)의 손녀인 거트루드 밴더빌트 휴트니(1875~1942) 여사가 수집한 700여점의 컬렉션으로부터 시작됐다. 조각가이기도 했던 휴트니 여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유능한 작가를 돕기 위해 그들의 작품을 사들인 것이 컬렉션의 시초가 됐다. 이 때문에 지금도 휴트니 미술관은 미국 현존 작가의 작품수집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700여점에서 출발한 휴트니의 컬렉션은 세계적 화장품 메이커인 에스티 로더 등의 기증에 힘입어 회화, 조각, 영상설치, 소묘, 판화, 사진 등 1만7천여점으로 늘어났다.

지난 1931년 뉴욕 웨스트 8번가의 기존건물에서 처음 문을 연 휴트니 미술관은 미술관의 정식명칭에서 알 수 있듯 미국 국적을 가진 작가들의 작품만 전시되어 있다. 뉴욕 현대미술관(Museum of Modern Art)이 세계의 현대 미술을 대표한다면, 휴트니 미술관은 미국의 현대 미술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소장품 가운데에는 앤디 워홀, 로이 리히텐슈타인, 에드워드 호퍼, 알렉산더 칼더, 조지아 오클리, 재스퍼 존스 등 미국작가의 팝아트 작품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가장 미국적인 미술관’을 보기 위해 매년 전세계에서 약 50여만명이 휴트니 미술관을 방문한다.

3만 평방피트 규모의 휴트니 미술관에 들

벽면을 이용한 작품도 만들 수 있어 비엔날레와 같은 대형전시에 알맞다. 휴트니 미술관은 무명의 젊은 작가들에게 문호를 적극적으로 개방한 ‘행동하는 미술관’이기도 하다. 미국의 젊은 작가들을 양성하기 위해 지난 1982년 창설한 휴트니 비엔날레는 오늘날 베니스 비엔날레, 상파울로 비엔날레와 함께 세계 3대 비엔날레로 자리

으로 탄생한 아웃리치 프로그램은 일반 관람객은 물론 미술관에 올 수 없는 경제적, 문화적 소외계층까지 아우른다. 이 가운데 시니어(senior) 프로그램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노년층을 미술관으로 끌어들이는 휴트니 미술관의 역할 사업이다.

지난 1994년부터 뉴욕시의 여러 노인단체들과 연대해 전개해오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노인 관람객들을 10~20명 내외의 소규모 그룹으로 나뉘어 전시회, 강연회, 영상회 등에 초대된다. 특히 정기적으로 열리는 ‘미술관 무료관람의 날(Open Access Days)’에서는 노인들이 다양한 문화행사를 즐기며 여가시간을 보낸다.

또한 미술관은 예술이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해 유치원, 초등학생, 청소년, 교사들을 대상으로 ‘생활 속의 미술문화’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지난 200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화요미술교육’이 좋은 예다. 매주 화요일에는 일반 관람객들을 배제하고 유치원생~12학년(고3) 학생들에게 미술관을 개방, 미술관과 지역사회에 유대를 보여주는 도법적인 운영사례로 꼽힌다.

이 밖에도 가족단위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한 ‘키즈 앤 패밀리(Kids & Family)’, 방과 후 워크숍(After School Workshop), 작가와의 대화시간, ‘페블리 프로그램’ 등이 연중 운영된다.

/뉴욕=박진현기자 jhpark@kwangju.co.kr

## 미국 현대미술 대표 ‘가장 미국적인 미술관’

### 앤디 워홀 등 팝아트 작가들 작품 다수 소장

### 노인단체와 연대 전시회 등 노년관람객 초대

어서면 아트숍과 레스토랑 등이 입주해 있는 지하층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지하층 앞뜰에는 조각품 등을 전시할 수 있는 야외 전시장 겸 카페가 자리하고 있다. 1층 로비 왼쪽에 티켓 판매창구가 있고 정면에 있는 서점에서는 현재 열리고 있는 전시회 카탈로그와 미술서적 등을 판매한다.

여기서부터 5층까지가 전시공간이다. 보통 3~4층에서는 기획전이 열리고 5층에서는 영구소장품을 전시한다. 4층 전시장은 가장 넓은 공간, 천장이 5미터 이상인 이곳에서는 야외조각을 전시할 수 있고 공간이나

잡았다.

엘리트작가 위주의 권위주의적 미술전람회에 반기를 들고 출범한 휴트니 비엔날레는 출품작들에 대한 시상제도는 물론 상금도 없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시민에 국한되던 자격을 지난 1997년부터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까지 확대해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이아라씨가 영화부문에 참가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휴트니 미술관은 미국의 미술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아웃리치(outreach)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한다. 사회교육의 일환



뉴욕 맨하튼 미디슨애비뉴에 위치한 휴트니 미술관 전경. 미국의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가장 미국적인 미술관으로 불린다.



휴트니 미술관의 ‘키즈 앤 패밀리(Kids & Family)’ 프로그램에 참가한 아버지와 딸이 드로잉에 열중하고 있다. (휴트니 미술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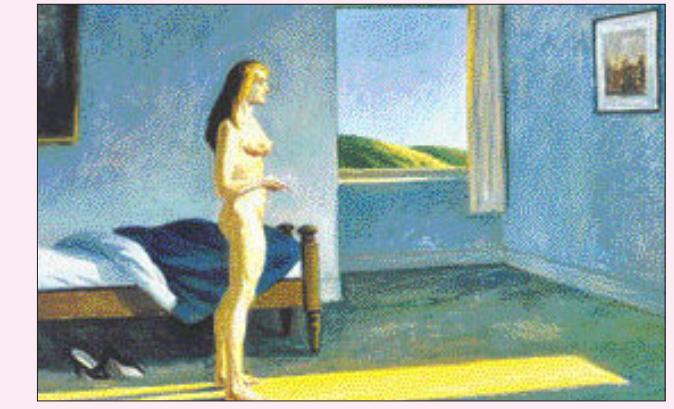
## 휴트니는 ‘호퍼의 미술관’

### 미 사실주의 작가 작품 2,500여점 소장

휴트니 미술관이 가장 미국적인 미술관으로 불리는 데에는 에드워드 호퍼(Edward Hopper·1882~1967)를 빼놓을 수 없다. 미국의 대표적인 사실주의 작가인 호퍼는 20세기 도시인들의 고독을 ‘정직하게’ 그려냈다는 점에서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작가 가운데 한 사람이다.

에드워드 호퍼와 휴트니 미술관의 만남은 지난 1970년 이루어졌다. 그의 미망인은 호퍼의 작품 약 2천500여점을 미술관에 기증, 휴트니 역사에 큰 획을 그었다. 이는 단일 기증으로는 휴트니 사상 가장 많은 규모로 꼽힌다. 이로 인해 휴트니는 미국에서 호퍼의 작품을 가장 많이 소장한 미술관이란 명성을 물론 매년 그의 작품을 보려는 관람객들로 꽉꽉한 수의를 얻고 있다.

에드워드 호퍼는 화려한 실험이나 해체가 난무했던 20세기의 미술사에서 끗끗이 눈에 비친 풍경과 사람을 그리는 사실주의를 고집했다. 20세기 예술의 메카로 불리는 파리에 가서 “사람들



에드워드 호퍼 작 ‘햇빛속의 여인’(1961년)

이) 왜 파리를 말하는지 모르겠다”는 의문을 갖고 돌아온 일화는 유명하다.

그의 작품은 마치 영화 한 장면을 정지시켜놓은 듯한 스플릿진을 연상케 한다. 전원주택, 호텔, 레스토랑, 극장 등 미국인들의 일상과 친숙한 공간에서부터 여성과 태양광선을 테마로 한 일련의 작품들을 통해 인간의 소외감을 간결하면서도 강렬하게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진현기자 jhpark@kwangju.co.kr

## 대인동삼일부동산

☎(010-223-1140, 020-701-011-012-2322)  
(광주은행 신본점점, 대인동 소방서간부점)

##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

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

질 비전 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

포가 여려개인 상가를 대  
표적인 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  
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

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

문 소개업체인 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

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

## 정우부동산

☎(070-47-088-7701-011-603-47-088  
(성신동 한일빌딩부근)

## 건물매도

·외곽도로변 한일병원부근 대  
지1200평 약400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1억 원대보  
증금 1억 원 월450만원

·외곽도로변 대지84평 건폐 약  
300평 지하1층 지상5층 각층  
50평 매매가 7억5천 원보증금  
1억3천 원420만원 월838억

## 토지매매

·한일병원부근 대지 약150평  
평당 매매가 250만원

·봉산동 라인하이츠 입구 부근 대  
지 약185평 매매가 4억4천만원

·남구 봉선동 부동2차 정관부근  
대지 약200평 2차선집 평매가  
평당120만원

·월드타운 외곽도로 대지 약160평  
35m×10m도로변 평당 450만원

·인성고 후문부근 대지 약204평  
평당 60만원

·남구 이장동 주거지역 약400  
평 평당60만원

## 임야매매

·남구 도동동 일야 21000평

매매가 6억 신설예정 도로인접

## 증개법인 리치부동산관리(주)

☎(02)233-8311 ~ 3

## 화순군 남면 대곡리 청용골

답 10,123㎡(3,062평)

농업보호구역

평당 30,000원

## 시설물 : 파이프비닐하우스

600평(300평×2)

주택 20평

전기시설 설치됨(16KW)

전화 설치됨

절반이상 녹차식재(3년)

## 현황 : 평탄한 지형임

(좌측)약300m이상

계곡에 접함

(우측)약300m이상

4m포장도로에 접함

## 부동산 경매

·부동산 투자분석

·부동산 재산관리

·문종 관리

## 오 건 고

016-615-3900

## 첨단월계공인중개사

☎(070-45-4585 011-604-6205  
(성남지구 부평A LC빌딩 사거리)

## 급매매

## 첨단 삼소동

첨단인근 30m 도로점

1000평 공장 창고부지 적합

## 첨단중심 상업지역

·첨단지구 예정지 200평

·부영 호반 80평

·전기시설 설치됨

·전기설비 16KW

·전